

전여대협 출범식 기획안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한마당과 관련하여 (1차 보충용)

수신: 각 지역 대학 여학생회 간부일꾼

발신: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식민지 조국의 해방을 안아올

그대 여성전사여!

제 6 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건)

그동안 제출된 한총련 출범식 1.2차 제안서, 학생

부문계열운동의 역할과 과제, 전여대협 한마당 제안서를 잘 숙지하고 한총련이 부여받고 있는 구국운동의 요구속에서 학생부문계열운동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합시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전국이 통일적으로 여학생운동을 펼쳐가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는 우리 전여대협 상황에서, 여학생운동이 구국운동에 올바르게 복무하고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웬지모를 소외감을 갖고 있는 우리 여학일꾼들에게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자그마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리라 확신합니다.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열망하는, 그리고 여성해방 나아가 참된 인간해방을 갈망하는 전국의 여학일꾼 여러분!

조국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땅 여성의 자주적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전여대협 한마당을 준비합시다.

1. 전여대협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87년부터 지역 여대협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89년 평양축전을 계기로 전국적 논의가 가시화 되었다. 그래서 전국 총여학생회장단 약 70여명이 한양대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논의하는 가운데 전여대협 건준위가 결성되었다.

그 이후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가 진행되었고 평측투쟁, 92년 보은 진관 투쟁, 93년 윤금이씨 살해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92년 전여대협 중앙 정책 1인과 의장, 부의장의 역할로 대표자회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던때를 제외하고 93년에 다시 각 지역여대협이 통일적으로 사업을 펼쳐가는데, 전여대협 대표자회의나 정책회의가 일정 한계를 노정했습니다.

94년 올해에는 각 지역 대학에서 지역과 전국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했음에도 서로 연락을 못하고 있다가 3월 5일 대구 경북대에서 지역 정책단위가 있는 4개 지역(서여대협, 대경여대협, 부경여대협, 남여대협)이 모여 전여대협의 올해 방향과 대표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2차 정책 회의와 20일 전국대표자회의를 광주 조선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 뒷 이야기는 각각 지역의장을 통해서 보고받으셨으리라 믿기에 생략합니다.

2. 한마당 의의 목표를 이야기하기전에 드는 생각

우리는 올해 양애리 학우 사건을 통해서 이 사회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았고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보면서 성폭력의 그 무한대성에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게다가 미국과 호전집단 김영삼 정권의 무기수입, 전쟁책동 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제2의 정신대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주한미군의 범죄는 악랄하리만치 잔인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이후 수많은 개혁을 떠들고 있는 김영삼 정권이지만 우리는 기간의 투쟁의 과정속에서 김영삼 정권이 절대로 4천만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대매국정권 김영삼 정권은 국제화 개방화의 거짓논리로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고 미국의 우리 국민의 대한 수탈을 오히려 앞장서서 거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차 확인하고 있는 IDQ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미국과 김영삼 정권은 이 땅 여성들의 압제자요, 억압자요, 수탈자요, 그래서 우리들의 타도의 대상일뿐, 결코 진정한 대변자도, 그 어떤 동반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 우리는 각 대학에서 분산 고립적이 아니라 지역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지역여대협과 전여대협을 건설하기 위해 고분분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여대협이 건설되어지지 못한곳이 있고 전여대협또한 건설준비위원회로 제6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4년 올해 전여대협 한마당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함께해야 할 것인가?

이제 명확합니다.

미국과 김영삼 정권 아래에서는 결코 한시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떤것도 기대할 수 없기에 이제 우리는 전국 50만 여학우와 함께 전여대협 깃발을 들고 미국반대, 김영삼 퇴진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는 전여대협을 건설하고 한총련을 강화하는 그 길에 일로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여대협 한마당 의의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3. 한마당의 의의

출범식을 매개로 백만 학우들에게 현재 여학생운동의 구체적 상을 제시하고 전국 여학생일꾼과 50만 여학우가 전여대협을 자신의 조직으로 받아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력한 공간이다.

-실제 아직까지도 부문운동으로써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가 학생회 골간 간부에서부터 전체 백만 학우에 이르기까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설사 이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해의 정도가 천차만별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백만 학도가 한데 모여 투쟁의 결의를 모으는 한총련 출범식에서 전여대협의 이름으로 전국 여학생일꾼들의 사상 통일 단결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투쟁을 한총련 백만학도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한총련 출범식 학생부문계열사업 준비단에서 기획한 자료에서 언급한 이야기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제4차 대표자회의때 배포해 드렸습니다.)

4. 목표

*정치적 목표: 전여대협 50만 여학우는 미국반대 김영삼 정권 퇴진 투쟁속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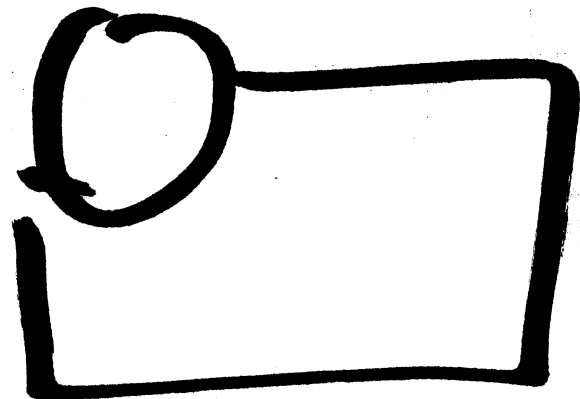
-쌀 수입개방 저지, 국회비준 거부 투쟁을 힘있게 결의 전개하자.

-전쟁책동 분쇄,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다그치자.

-성폭력 특별법 개정, 가정폭력 처벌법 제정 투쟁을 각계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전개하자.

-오월문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투쟁으로 오월영령 한을 풀자.

*조직적 목표: 애국하는 조직 한총련의 부문 돌격부대로서 전여대협(건)을 올곧게 총



화하고 전여대협 건설의 결의를 확보하자.

-지역여대협을 앞세우고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통일 단결하자.

-지역대표자회의와 전여대협 대표자회의를 강화하자.

-소모임, 과여학생부를 잘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각 지역여대협, 총여학생회, 단대여학생회, 과여학생부의 전일적 체계를 세워가고 강화하자.

*전여대협 한마당을 준비하는 우리 간부들의 원칙

-기간 여학생운동을 잘 총화하여 그 결실점으로 삼고 이후 구체적 투쟁의 결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자.

-여학생회 간부들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헌신성, 대중성, 투쟁성을 구현하여 간부혁신의 기치로 학우 의식화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자.

-여학생회 간부들이 먼저 결의하고 참여한 학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한마당을 창출하자.

5. 의식화 조직화 방침

기간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해서 교양체계를 잘 세워 간부들의 사전 토론을 바탕으로 학우 의조직화를 전개합시다.

-지역이든 대학이든 따로 정치해설단을 꾸릴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체계를 중심으로 교양사업을 전개합시다.

:지역 대표자회의에서 1차토론, 지역의장이 각 대학과 간담회(가능한)등을 이용하고 각 대학별 지역별 집단 교양 형태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전여대협 한마당을 준비하면서 꼭 사전에 대학별이든 지역별이든 간부결의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28일 한마당 시작이전에 지역결의대회를 갖고 참가하는것은 별개로)

6. 각 지역 대학 사전 선전 지침

-전여대협 한마당 포스터를 기본으로 전여대협과 의장님에대해 학내 선전을 합시다.

-현시기 정세에 대하여 정치 기획선전을 내용있게 잘 합시다.

7. 그러면 한총련 출범식에서 우리는.....

*희망의 나라 (기획거리)

-윤금이씨 살해사건과 주한미군 범죄에 대하여(서여대협)

-전여대협에 대한 소개(경기남부 여대협)

-80년 5월과 여성(남여대협)

-양애리 학우 사건과 가정폭력에 대하여 (부경여대협)

-성폭력, 성희롱에 대하여(경기동부 여대협)

-여성농민과 쌀 수입개방 저지 투쟁에 관하여(대경여대협)

-여성은 위대합니다. 시화전(전북여대협)

-이북의 여성도 우리와 한겨레 한동포이지요.(대전여대협)

*전여대협 한마당 (28일 10시)

-문화공연: 울동공연(충남여대협)

극(남여대협)-오월 혁명 정신을 계승하자.

-연대사:전국 여성 농민회 회장,민가협 어머니,한총련 의장

-정치연설:우리 힘으로 양애리 학우 구출하자.

전여대협을 건설하고 한총련을 강화하자.

-의장님 응립식

-실천 결의:참가한 학우 모두가 함께 미국반대 김영삼 정권 퇴진의 결의 형상화

8. 각 지역 여대협, 대학에서 준비할 것

-지역 의장 소개 자료(1장), 의장님이 입을 한복

-지역, 대학 깃발, 지역별 정치구호 프랑

-지역별 대학별 투쟁의 결의를 보여주는 상징물

한총련 출범식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백만의 힘으로 4천만 국민의 가슴에 미국반대 김영삼 퇴진의 그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기 위해 우리 또한 우리의 할일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일이란 바로 과여학생부, 소모임성원들까지 전여대협 한마당으로 잘 조직하여 전여대협 한마당을 우리 여학일꾼의 힘으로 성대히 치루어 내는 그길에 있음을 명심합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여학일꾼을 잘 교양하고 조직하는 일에서부터 학우 의조직화에 간부의 할 도리를 다합시다.

전여대형 의상님을 찾아서 -

160cm 키에 귀엽게 생긴 그녀의 모습

~~전~~ 진정 이분이 50만여원만큼 이쁜이 거신 의상님인가
생각해봤으나 대화를 통해 무척 사려깊고 조용한 분이.

머리맡은 보여주는 웃음은 참배...

그의 진면목을 살펴보기로 했다

71년생. 바깥직한 여성상으로선 흥취가 없는

평한 여성상으로 빙만치고 남성일을 강조하는

권위주의, 우월주의를 싫어한다는 그녀의 별칭은

여시 ~ 여우

관찰한 성격만큼이나 스트레스를 고함이나 발광으로

해결하고 호탕한 웃음이 그녀의 매력인듯...

누구든지 모르는 애인이 있어서 께인 아기는

보통 1교는 전후주교도 얻을 수 없는 풍자라는 것은

하프등 단로는 항상 ~~주~~ 조태항우라 한계라고

싫다면이 전여대형 한아담 뒷뜰이신 쟁하리

노래도 한두 번 사하신다면.

그녀의 이름은 ~~한아담~~ ^주

28일 전여대형 한아담이시

그녀를 만났습니다

* 전여대형 한아담은 하프 단을 하미산과

개미이 아닌 여우이어서 가랑비이비비리

6기 전여대협 건준위를 1기 전여대협 건설로...

50만 여학우의 단결된 힘.

역사속에서 살아숨쉬는 여성들의 뜻을 기리며
이제 그 첫 출발을 95년 통일과 함께 한다.

##총적기치 해설##

개별화되고 분산된 우리 여학우들이 아니라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50만 전국 여학우들의 힘을 모으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성운동의 자랑찬 역사를 이어받으며 6년간의 건준위 체계의 성과점들을 95년 제1기 전여대협 출범의지로 모아내면서 95년 통일운동에 우리 여학우들이 힘찬 전진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1. 첫 글

여성들이 역사책의 뒷안길로 묻혀버리는 것이 으레이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여졌던것도 어언 수백, 수천만년.

더이상 소극적이지도 않고 개별적이지도 않습니다.

과감히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역사를 주도하는 주인됨을 가지고자 합니다.

분단된 한반도 여성의 삶은 그리고 식민지 여성의 삶은 더이상 자유로울수도 없으며 더이상 참을 수만도 없습니다.

이제 분노와 힘과 열정으로 시대를 이끌고자 합니다.

전국 50만 여대생의 단결된힘. 전/여/대/협/

여대생이기에 받게되는 차별적 요소들을, 식민지 조국의 여성이기에 당해야만 했던 억압들을 깰수 있도록 우리 여성들을 하나로 묶었던 전여대협.

하지만 6년간의 건준위 체계로 인한 한계때문에 좀 더 힘있는 조직체로 결집되려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6년동안 힘있게 벌여냈던 여성자주화 투쟁을 계승발전시키며 이제 제1기 전여대협을 힘차게 건설하여 전국 50만여성의 애국역량들을 하나로 모아 이땅 2천만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 그 중심에 우뚝서기위해 무단히 노력할것입니다.

2. 기간 출범식에 대한 평가

<성과점>

1) 전국 50만 여성의 의지와 열의열성을 모아내는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89년 전여대협의 결성이후 여대생들의 힘을 모아내는 여러가지 방도를 고민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

직은 미약한 우리 체계의 현실때문에 많은 여학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결의를 내오는 자리는 전여대협 출범식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간부들과 대표자들만이 참여하는 자리가 아니라 과에 있는 우리 여학우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받아가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2) 한가지 목표를 갖고 투쟁하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고민할수 있었습니다.

여학생운동은 전체학생운동에 비해 그 역사가 짧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직 내용적으로 많이 미약하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나혼자만이 내주위의 몇몇만이 여학생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때도 많았습니다.

이럴때 전여대협 출범식에서 전국에서 모인 우리 여학우들을 보면서 혼자만의 고민은 활동은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같은 목표속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3)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내고 전통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올바르게 서기위해서는 그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전국50만 여학우들의 다양한 이해들을 모아내어 하나의 공동사안으로 만들기 위해 전여대협이 결성되었고 우리 50만 여학우를 대표하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단결합니다. 역사속에서 면면히 이어내려온 여성운동을 계승하고 짧은 역사이지만 전여대협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려는 자리가 우리의 출범식이었습니다.

4) 그 시기 당면투쟁을 전국적으로 결의할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전여대협 활동의 성과들은 분명 몇몇 학교만이 투쟁을 잘 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전국 각 학교에서 투쟁을 열심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92년도의 보은, 진관구명투쟁, 93년도의 윤금이씨 살해미군 처벌투쟁, 94년도 양애리 학우 구명운동등이 바로 그 성과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시기 당면투쟁을 알려내고 전국적으로 결의하는 장이 바로 전여대협 출범식이었습니다.

5) 여성단체의 연대사를 통해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장이었습니다.

여학생운동은 부문계열 운동으로써 전체운동에 강화, 복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대투쟁을 할때에만 더욱더 강위력해집니다. 출범식때 여성단체의 대표님들의 연대사를 통해 여성운동단체와의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한계점>

1) 건준위 체계로 인해 많은 여학우를 조직화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튼튼하고 기층여학우들까지 합의되지 못한 건준위체계때문에 출범식에 오는 여학우들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기층의 많은 여학우들을 조직화하지 못하고 아직은 여학단위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출범식에 참가하였던 것이 우리의 한계점이었습니다.

2) 부계시간으로서의 내용성이 빈약했습니다.

출범식의 정책이나, 기조를 제대로 내오지 못함으로써 출범식의 내용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식전문화공연, 대표자들의 인사... 하나의 일관된 전체기조없이 도막,도막 단절된 내용들로 우리의 힘찬 결의를 담아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었는 듯 싶습니다.

내용이 없다 탓하기 전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자세가 먼저여야 되겠습니다.

3) 준비주체가 출범식 재최지인 학교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출범식은 개최 학교만 뼈빠지게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여대협 중앙 집행국이 없는 상황에서는 출범식 개최학교 간부들만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출범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고나면 그 학교 간부들은 힘이 빠져 나가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폐해들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물론 개최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그 지역 여대협을 중심으로 출범식을 준비하고 다른 지역 여대협들도 함께하는 출범식이 되어야겠습니다.

4) 성과점들을 출범식 이후에도 계승 발전시키내지 못했습니다.

출범식에 다녀온 우리 여학우들은 많은 감동과 결의들을 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동과 결의들을 각 학교로 돌아가서는 계속 발전시키내지 못하고 곧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범식이 단순히 판중심의 행사가 아니라면 출범식 이후의 성과점들을 계승 발전시키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내와야 할 것입니다.

5) 출범식 기조에 대해 학우들과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여학우들을 출범식에 참가하게 할때 내용이나 기조에 대해 토론하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가보자' 라는 식으로 데리고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무생각없이 왔던 우리 여학우들은 조금은 뻥해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간부들만 출범식 기조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층 여학우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오도록 해야겠습니다.

3. 제3기 한총련 출범식에서 제1기 전여대협 출범식이 가지는 의의

무엇보다 한총련으로 통큰 단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

올해 제3기 한총련 출범식이 가지는 의의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놓이는 것이 바로 부문계열의 강화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한총련 운동의 미래를 부문계열 운동이라고 바라보며 횡적체계의 강화를 이루어 학문적 요구에서부터 조국의 운명을 자각해가는 민족지성의 참모습을 만들어갈 것이 요구됩니다.

부문계열 한마당은 한총련 출범식을 좀 더 구체화하고 풍부화하는 장입니다. 출범식을 그저 실무단을 얼마나 많이 조직하여 실무를 잘 준비할 것인가, 얼마나 화려하게 준비할 것인가로 고민이 되면 안되겠습니다.

한총련 출범식이 가지는 결의의 장으로서 투쟁의 장으로서, 통일단결의 장으로서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리는 내용으로서의 부문계열 한마당은 의의가 있습니다.

자기가 속해있는 단위의 내용을 가지고 자부단을 하고, 출범식을 준비해 간다면 그것은 그저 출범식에 다녀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범식의 자리에서 자기삶의 내용으로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을 얻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1) 부문계열 운동의 선봉, 한총련의 모범으로 전여대협 출범식은 자리합니다.

다른 어떤 부문계열보다 여학생운동은 자기의 내용을 확실히 쌓아가면서 여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으면서 여학우들의 자주성을 고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여학생운동은 한총련운동의 모범으로 전체운동의 강화발전에도 노력했습니다.

2) 여학생운동의 투쟁과 내용들을 한총련으로 통일단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문계열만의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전여대협 출범식을 준비하니까 이것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 전여대협 출범식은 잘했지만 전체 한총련 출범식판이 엉망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성과점으로 놓을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용들을 전체 한총련으로 통일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여대협과 다른 모든 부문계열의 최종단결의 모습은 한총련으로 모아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리로서 한총련 부문계열 한마당, 전여대협 출범식은 자리합니다.

3) 힘찬 결의의 장으로서 부문계열 한마당(전여대협 출범식)은 자리합니다.

한총련 출범식의 본 행사는 백만청춘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아서, 포괄적인 의미의 투쟁을 결의하고 공유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전여대협 출범식은 그 투쟁의 결의를 받아안으면서, 다시금 구체적으로 여학생처지에 근거하여 투쟁을 결의하고, 계획하는 장으로 전여대협 출범식은 자리합니다.

4. 제1기 전여대협 출범식의 목표

1) 전여대협 건준위체계 6년의 성과점들을 이어받고 그 한계점들을 극복하여 제1기 출범을 당당히 일러냅니다.

전여대협 건준위 6년동안 잘한 일도 많고 못한 일도 많습니다. 없던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점들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낙관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점들을 냉철하게 잡아내면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성과점들을 이어받아 더욱더 잘하기 위해 이제 제1기 출범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여학단위 간부 몇몇의 간부들에게만 인식되는 전여대협이 아니라 50만 전국 여대생들에게 '나의 조직'으로 와닿게 하며 전여대협으로 50만 남한 여대생들의 힘을 결집시켜 내어야 합니다.

아직 전여대협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나의조직'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제1기 출범식을 계기로 우리 여학우들에게 전여대협을 더욱 가까운 '나의조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우리 여학우들의 힘을 모아내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내야 합니다.

3) 95년의 시대적 과제인 통일구국투쟁에서 여학우들의 주체적 역할을 보장하고, 지자체 선거에서 20%여성의회 확보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화, 여성단체와의 연대투쟁을 힘있게 결의하는 장입니다.

95년은 통일원년으로 모든 총력을 통일구국투쟁으로 결집시켜낼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여학우들도 이시대를 살아가는 청년학생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아야 하며, 여학생운동 또한 통일운동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학우들이 통일투쟁을 벌임에 있어 아무런 목표나 기초없이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올 95년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는 기초로서 지자체 선거가 열리는 중요한 해입니다.

민주적이고 올바른 여성정책을 가진 여성후보를 적극 지지, 지원하여 우리의 요구들을 관철시켜내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 여학우들은 지자체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방도들을 고민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이루어내도록 합시다.

4) 여학생운동의 자긍심으로 올바른 여학운의 방향성을 잡아내고 50만 여대생들의 즐거운 축제의 장입니다.

여학운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운동에 비해 우리가 왜소하고 힘도 미약하다해서 자꾸 주눅이 들고 자신없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학운의 역사는 학생운에 비해서는 역사도 짧고 내용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주 어디와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여학운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으로 여학운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현실에 맞는 여학운 내용을 잡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여대협 출범식은 여학운의 자긍심을 가진 여학우들이 모여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놓여질 것입니다.

5)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일제잔재 청산과 민족정기회복에 앞장서야겠습니다. 그 방도로서 여학운에서는 정신대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직도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황신대 할머니들의 외로운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귀기울이는 이 없고 정부에서는 그 해결의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 남북 공동사안으로 그리고 아시아 여성 연대 차원으로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여학운은 정신대 문제 해결의 선두주자로서 일떠서야 하겠습니다.

단순한 후원 차원의 감상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문제의 해결만이 우리의 올바른 투쟁방법이라야 하겠습니다.

6) 출범식 개최지역인 대경여대협과 경북대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이루는 유력한 계기로 삼습니다.

출범식은 단순한 행사나 기획판이 아닙니다. 출범식을 준비하고 치루는 것은 바로 여학운을 이해하고 푸는 대중정치사업입니다. 전여대협 출범식을 계기로 개최지역과 대경여대협과 경북대 여학생회는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겠습니다.

7) 여학생 일꾼의 재생산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학단위 주위에는 사람이 없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갑갑해하는 부분의 하나가 바로 여학운의 간부재생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출범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위에는 자봉단을 비롯한 여러 여학우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사람들과 함께 출범식을 준비하고, 기획함으로써 여학운의 이해를 높이고 이후 조직화 방도를 고민하여 일꾼 재생산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8) 각 지역 여대협을 강화할 수 있는 방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출범식은 개최지역 여대협에서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여대협 출범식은 각 지역여대협이 함께 준비하는 우리의 대동단결의 장입니다.

지역 여대협에서는 출범식을 어떠한 식으로 참가하고 성과점들을 남겨 지역여대협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방도들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5. 제1기 전여대협 출범식의 기초와 방향에 대하여

<내용적 방향>

1) 여성이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중첩되는 억압에 대해 고민하고 특히 민족사적 대전환기의 청년여학도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자신에 가해지는 억압을 어떻게 이겨내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합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중, 삼중으로 역할이 기대되기도 하고 또한 억압과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느끼고 극복하겠다고 의지를 가진 여학우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출범식을 계기로 우리 간부들은 여학우들에게 여성문제를 알려내고 그 해결방도들을 함께 고민하

여야 할 것입니다.

2) 제1기 전여대협의 운동방향인 총노선을 50만 여학우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3) 제1기 전여대협의 사업방향과 구체적인 대중운동 계획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총노선을 바탕으로 하는 올 95년 여학운의 방향을 잡아내고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투쟁방향들을 가져오고 50만 여학우들이 결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적 기조>

1) 무엇보다 전여대협에 속해있는 각급단위가 제1기 출범식을 계기로 결집 통일단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 전여대협은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여대협을 나의 조직으로 여기며 강화 발전시켜 내기 위해서는 각 학교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물론 각 지역별로 각 학교별로 상황이 힘든 것은 잘 압니다 그렇다고 자기학교, 자기지역여대협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의 전여대협은 그 어느 단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학운의 힘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해 단위 이기주의를 버리고 전여대협으로 결집, 통일단결하여야 합니다.

2) 기층 여학우들에게서부터 전여대협 출범의지를 높여내며 간부들은 비상한 결의를 가지고 여학우 한사람 한사람을 힘있게 만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전여대협 의장 한사람, 대표자 몇몇이 책상머리에 모여앉아 출범을 하자고 결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층 여학우들에게 전여대협을 알려내고 기층 여학우들 사이에서 출범하자는 소리들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간부 한사람 한사람이 비상한 결의를 가지고 여학우들을 만나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3) 산발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여학우들을 여학단위로 묶어낼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출범식을 통해 묶여진 자방단이나 알게된 여학우들을 출범식이후에도 여학단위로 묶어낼 수 있는 조직화방도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출범식 준비와 행사기간중에 여성문제나 여학우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어 출범식이후 여연(학회)이나 탁아활동 소모임, 단위 편집부원등으로 묶어낼 수 있는 방도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4) 여러 여성단체와의 내용적, 실천적 결합력을 모색하여 전체 남한 여성운동의 강화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여학운이 먼저 여학생이라는 자신의 처지에 근거하여 내용을 푸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전체 여성의 처지 또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범식을 통해 여러 여성단체와 내용적, 실천적 결합력을 높여내고 공동투쟁을 결의할 수 있는 장으로 놓여져야 겠습니다.

<대중운동의 방향>

1) 사람이 성장하는 운동의 성형을 창출합니다.

20여년의 세월동안 받아온 제도교육, 성차별 교육으로 인해 우리 여학우들은 왜곡된 그리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변화발전시키고 주체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실천의 과정이 요구됩니다.

출범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성장하는가로 견지되어야 하며 그러했을때 사전조직화과정-->출범식 참여과정-->사후조직화과정이 연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2)시민들에게 여학우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고 여성운동의 선봉장이 되도록 합니다.

3)부트조아 여성운동을 극복하고 각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강한 여성운동을 찾도록 합니다.

4)전세운동의 강화발전을 이루어내도록 합니다.

6.제1기 전여대협 출범식 대중의식화 사업의 방향과 방도

1)의식화의 방향과 내용

-6년간의 건준위 체계의 성과점과 활동상황들을 선전한다.

-왜 올해 출범을 할려는가에 대해 설명하자.

-전여대협이 어떠한 조직이며 왜 우리가 주인으로 서야 하는지를 말하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전여대협이 아니라 나와 함께 웃고 우는 함께 숨쉬는 조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가오도록 선전하자.

2)자신의 처지를 개탄해 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여학우들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심어주자.

-여성들이 받는 억압, 착취에 대해

-여대생들의 현실에 대해

-지자체 선거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

-통일구국투쟁에서 여대생의 역할에 대해

3)50만의 힘과 2천만 여성의 지지로 여성권리를 획득하자.

<의식화의 방도와 형식>

1)무조건 많이 만나자.

-유인물투쟁을 벌여내자.

전여대협을 알리는데 있어서 말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적 효과도 중요합니다. 유인물 내용을 더욱 다양하고 보기 편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여학우 가슴 가슴마다 전여대협 사랑 뗏지 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경복대를 중심으로 전여대협 사랑, 건설의 의지를 담은 뗏지를 하나씩 달아주면서 전여대협을 알려내고 있습니다.

-모금투쟁을 벌여내도록 합니다.

출범식 판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학우들에게서부터 모금투쟁을 전개하여 모은 돈으로 신문광고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자 합니다.

유인물, 뗏지를 달아줄때 학우들에게 충분히 의의를 설명하고 모금투쟁에 임하도록 합니다.

-화장실 유인물, 자보, pc선전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점심 시간 선전전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실무준비를 한다고 해서 학우들을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는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실무에 시달려도 하루에 1시간 점심선전전만큼은 학우들을 만날수 있도록 합니다.

2)내용을 가지고 만남시다.

그냥 무조건 만나서는 곤란합니다.
 학우들을 만날때 이야기 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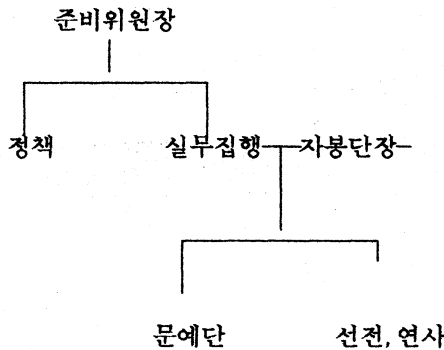
3)출범식에 자신의 목표를 세워서 올수 있게 하자

막연히 그냥 한번 가보자 또는 참가하자라고 오는것은 곤란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이번 출범식때 이러한 것을 얻겠다, 배우겠다 라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도록 해야
 겠습니다.

7.준비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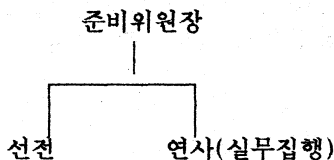
1)출범식 체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전여대협 출범식 준비위 중앙체계>



- 준비위원장: 경대 총여회장이고요, 모든 전여대협 출범식 준비를 총괄하
 다. 는 단위입니
- 정책: 경대 여학 운영위를 중심으로 대경여대협 대표자들이 정책을 마
 련합니다.
- 실무집행: 경대 총여 사무부장으로 하며 재정, 기획 모든 실무부분을 총
 괄하는 단위입니
- 자봉단장: 경대 총여 부회장으로 자봉단의 교양과 생활총화를 이루어냅
 니다.
- *문예분과-문예주체가 없는 관계로 총여 탁아부장이 주체를 맡고 한총련 중앙 문예단에서 지도할
 수 있는 1인을 초빙하도록 한다. 노래패, 몸짓패, 반주주자 등으로 해서 30인정도 조직화 예정
- *선전, 연사분과-총여 선전, 편집부장이 책임지며 모든 학내 선전과 초청사업 선전을 책임집니다. 15
 인정도 조직화 예정

<단대 여학생회 준비위 체계>



준비위원장: 단대 여학생 회장님이 책임지시고 단대여학생회장님은 중
 앙 정책단과 단

대 학생회의 정책단에 결합하도록 한다. 단
위와 그리고 단
선전단: 선전부장과 자부단 2-3인으로 구성
연사: 총기부장 주체로 2-3인 정도

대 여학생회는 중앙 전여대협 출범식 준비
대 학생회에서 총화를 가져내도록 한다.

<과여학생회 준비위 체계>

과여학 경우는 전여대협 출범식 준비위 체계로 따로 꾸리기 보다는 과 체계에 편입을 식히고 과 준비위속에서 선전과 과연대초청사업을 맡도록 한다.

8. 분과별 사업계획서

<선전 연사 분과 사업 계획서>

1) 들어가며

자부단을 꾸리면서 잘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시험기간이고 자꾸만 개별화 되어가는 새내기들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한계점을 짓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뒤엎고 시험치는 틈틈이 찾아와 열심히 일하는 희망지기들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며 했었습니다.

우리 헌내기들 열심히 합시다. 부끄럽지 않는 선배의 모습을 벌입시다. 우리 후배들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긴장합시다.

2) 선전 의식화의 내용과 방향

-6년간의 건준위 체계의 선과점과 활동상향을 선전한다.

-왜 올해 전여대협이 출범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자.

-전여대협이 어떠한 조직이며 왜 우리가 주인으로 서야 하는지를 말하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전여대협이 아니라 나와 함께 웃고 우는 함께 숨쉬는 조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가오도록 선전하자.

3) 전여대협 출범식 선전거리

-과에서부터 여학우 하나하나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선전거리

*1개과 1포스터 만들기

전여대협 건설의 의지모아 전여대협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주제별로 다양하게 잡읍시다.

과에서 50만 여학우를 초청하는 포스터 멋있지 않습니까?

*건설! 전여대협 입체 글씨를 학으로 꾸며봅시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학을 접어 봅시다. 자기 손으로 접은 학이 큰 입체글씨로 완성된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여학우의 힘찬 모습! 사진으로 남겨 백만과 함께 합시다.

더이산 개별화 되지도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여학우들의 당당한 모습을 알려내고 전여대협의 굳건함을 알려냅시다!

4) 전여대협 출범식 초청사업

각 학교, 단대별로 초청사업을 할 학교가 정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학우들이 정말 주인된 자세로 전여대협 출범식 초청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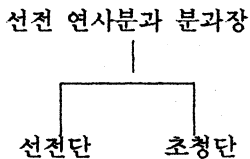
초청자보, 유인물, 다양한 입체물등을 각 과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담아 보내도록 합시다.

5) 전여대협 출범식 준비 선전단 체계와 운영계획

<구성원칙>

- *경북대 만이 준비하는 전여대협 출범식이 아닌 대경여대협에서 준비하는 출범식으로 만들어 대경여대협 선전단 연석회의를 통해 준비작업까지 함께 준비한다.
- *출범식을 계기로 준비과정에 있어 여학 단위의 선전주체들의 화고한 자기 입지를 구축한다.
- *희망지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단순히 자보 한 장을 더 쓰게하는 선전단이 아니라 전여대협에 대한 교양을 위주로 준비과정에서 사후 조직화까지 담보해낼수 있도록 한다.

<선전단 체계>



*선전, 연사 분과장의 역할

-전여대협 출범식의 선전연사의 준비과정에서부터 당일 선전판을 기획 1거점 1총화하고 희망지기의 교양과 생활을 총화해 낸다.

<회의 체계>

당일 출범식 선전판(무대, 선전거리)을 대경여대협 선전단 연석회의를 통해 이루어낸다.

6) 사업 계획과 준비일정

- 4월15일: 1차 프랑, 1차 자보, 1차 유인물
- 27일: 2차 프랑, 2차 자보, 전여대협 배지, 포스터 완성, 2차 유인물
- 28일: 초청 사업 준비물 완료, 전여대협 홍보물(알림딱지...) 완성
- 30일: 초청사업 완료
- 5월1일: 무대 완성, 환영 선전 완성(걸개, 프랑, 자보)
- 2일: 기획 선전거리 완성, 안내선전, 숙소별 선전 완성
- 3일: 총점검
- 4일: 야!출범식이다!!

7) 나오며

이 말 밖엔 할수 없습니다. 뻥십니다.
그만큼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하지 못하면 전부 엉망이 됩니다
'늦지 않았음을 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설! 전여대협, 강화! 한총련
에 선전연사분과의 역할은 크나큰 것입니다.

<문예분과 사업계획서>

이후 별첨

<자보단 사업계획서>

별첨

자봉단 전체 운영 계획서

1. 자봉단 조직화의 의의와 목표

- ① 전여대협이 나의 조직임을 느끼게하는 계기로서 7000여학우가 준비하는 출범식을 만들자. 출범식을 작지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 ② 조직화된 자봉단을 기초부터 시작해서 여학생회로 남기는 의식화를 해내자.
- ③ 한총련, 전여대협 출범식에 많은 여학우들이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자.

2. 자봉단 전체 교양 계획서

1) 의의와 목표

자봉단 전체교양은 21일까지 총화된 자봉단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출범식을 준비하는 이만의 흥미를 확인함으로써 자봉단 활동에 신심을 준비하는 이만의 힘을 확인함으로써 자봉단 활동에 신심을 얻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자봉단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감각과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새내기들을 중심으로하여 구성되는 만큼 새내기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부분을 해명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교양 내용

전체 자봉단 교양

* 기간의 학생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청년학생이 사회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끼친 영향과 위력을 확인하면서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 발전경로를 밝혀내야 한다.

- 학생회, 한총련으로까지의 발전(학생운동의 역사적 고찰)

* 우리 학교에서 출범식을 하는 이유를 95년 정세를 중심으로 풀기보다는 한총련이라는 조직과 나와 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새내기들의 자봉단 활동이 아주 당연한 활동으로 인식되게끔 해야한다.

- 한총련과 나, 내가 자봉단 활동을 하는 것은(가치관, 인생관 중심으로)

전여대협 자봉단 교양

* 여학생회는 있는데 남학생회는 왜 없을까? 학생회와 무엇이 다른가를 고민하는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학생회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그리고 여학생회는 무엇은 하는가에 대한 교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 우리학교에서 제1기 전여대협 출범식을 한다는데 도대체 전여대협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던가 라는 성과점을 바탕으로해야 제1기 전여대협 건설을 위해 뛰어다니는 자봉단들이 이후 여학생회 두리로 남게 될것이다.

3) 기타 드는 생각

- == 새내기들의 고민엿 출발해서 교양내용을 잡아야한다.
- == 강연을 진행하는 강사가 유도리있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야 한다.
- == 강사는 한총련 기획단에서 1명, 준비위에서 1명으로 고민하고 있음.
- == 교양은 최대한 실무나 일, 일정중심이 아니라 정치사상교양의 장이 되게끔, 새내기들의 대학생활에대한 생각을 바로 잡고, 인생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해야 한다.
- == 분과별 실무나 일정들은 전체 교양이후 단대별, 분과별 모임에서 최대한 풀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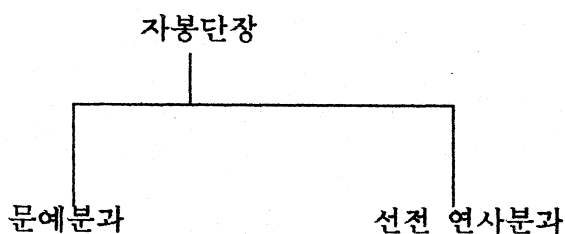
4) 일정

- ~10시 전체모임
- ~12시 전체교양 (강연2, 노래배우기)
- 이후 분과별, 단대별 모임
- 12시 부터 전여대협 교양
 - 노래배우자 "딸들아 일어나라"
 - 준비위 인사, 분과장 소개
 - 교양
 - 분과별 모임
 - 전체총화 및 뒷풀이

5) 명심할 것

- == 자봉단 전체가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최대한, 무조건 집중합시다.
- ==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인느 자리이므로 시간엄수!
- == 새내기들과 같이 얘기할 재학생들 최대한으로 결합시다.

3. 자봉단 체계



4. 자봉단 일정

4월 21일 4시	자봉단 단대모임
5시	자봉단 전체 발대식
22일	자봉단 전체 교양 전여대협 자봉단 교양
23일	대경지역총여학생회 선전단 연석회의
24일	분과별 모임 - 각 분과 주체의 분과 설명, 구체적 작업시작
25일	미포괄 학교 초청작업
26~28일	연대 초청사업 기간
29일	자전거 선봉대 모집
5월 1일~6일	자봉단의 실무단화
3일	자봉단 복현 시작 청소하기
7일	자봉단 전체 정리 청소하기

5. 자봉단 전체 이렇게 살자!!

- 간부들이 한달여에 거쳐 진행했던 아침 민주광장 조례를 함께 합시다.
아침 7시 조례를 해봅시다.
- 2만학우에게 전여대협 출범식을 대중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12시 복문 선전전에 집중하자.
- 자봉단 전체가 같은 책을 읽고 집단토론, 형상화 해봅시다.
권장도서 "내가 만난 여자, 그리고 남자"
- 시험이라 많이 바쁘지만 하루 1시간이상 실무 10분이상 교양하자.
- 집단적으로 총여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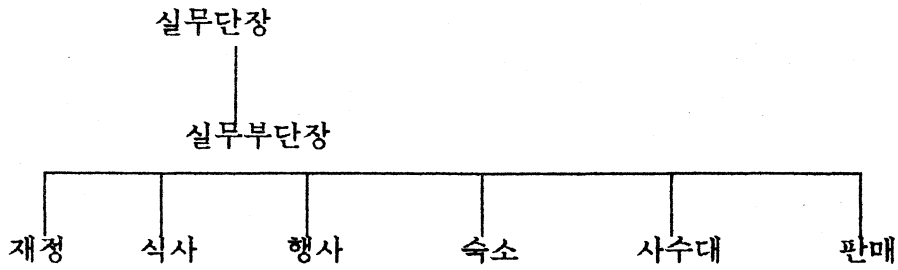
6. 자봉단 분과별 일정, 계획(별첨)

7. 자봉단 의,조직화의 방도

- 자봉단원의 시험, 수업시간표 파악해서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교양과 작업을 원활하게 한다.
- 반드시 활동시작전에 10분이상씩 교양하고 토론한다.
- 권장도서를 일일 30분이상씩 읽는다.
- 아침 조례와 12시 선전전을 지키자.

8. 5월 1일 ~ 7일까지 문예단외 전자봉단의 실무단화

체계



운영은?

- 단대 이기주의를 버려야만 출범식은 성사됩니다.
- 정치사업을 우선으로 사람남기기 사업을 중심으로 틀어줘야한다.
- 주체들은 17일 결사항전을 각오해야만 한다. (모두 죽어서 실러가야 함)
- 현실적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 목표, 실천만이 출범식을 성사시킬 수 있다.

2기 전여대협 출범식 기획안

일시:전대협 한총련 10년 5월 24일 시간은 아직미정

■ 2기 전여대협 출범식의 의의

1. 전여대협이 50만 여학우의 자주적인 대중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100만의 힘을 모으는 장이다.
2. 50만 여학우를 주인주체로 세워내는 자주성구현의 장이다.
3. 50만 여학우가 주체가 되어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투쟁을 총화, 결의하는 장이다.
4. 조국통일의 주역으로서 이 시대 청년 여학도의 힘을 모으고,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다.
5.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염원을 풀기위해 반미, 반김 투쟁을 선포하고 결의하는 장이다.

■ 2기 전여대협 출범식의 목표

1. 각 대학, 각 지역에서부터 준비하여 50만 여학우를 출범식의 주인주체로 만들어 자주여성을 구현하자.
2. 각 지역여대협에서 각 대학에서 출범식을 준비하면서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성과를 남기도록 한다.
3. 지역에서부터 투쟁으로 준비하고 이후 정신대 완전해결투쟁, 조국통일 투쟁, 반미, 반김투쟁을 완강하게 벌이기 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 기초

프름 투쟁하는 50만 여학우의 조직으로 대중속에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1. 역사 속의 여성전사들의 투쟁정신을 계승하자.
2. 여대생들이 현재적인 모습속에서 긍정성을 찾아내고 자주적 여성상을 구현한다.
3.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여대생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회투쟁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여대협으로 하나되어 전면적인 투쟁을 한다.

정신대 문제해결 투쟁

자주교류투쟁

□ 출범식 본판

식전행사(사회자 원광대 흥여회광)

기조 : 환영마당과 민중연대의 마당

내용:

전북대의 환영마당-환영사 및 환영공연

민중연대의 마당-전북여성운동연합의 연대사 및 한총련의장님 인사

공연:전북여성농민노래단, 전북지역 탁아소의 아그들 공연

정신대 문제해결 투쟁
자주교류투쟁

본행사(사회자 **남여대협**)

기조: 전여대협 출범식의 기초를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학우들과 합의하고 결의하는 장으로 한다.

- ① 지난 빨지산 투쟁속에서의 여성전사들의 투쟁을 형상화하여 그 속에서 여성전사들의 투쟁정신을 기리고 계승한다. - **북경**
- ② 현재 여학우들의 모습속을 그리고 그속에서 자주적인 여성상을 형상화한다. - **서여대협**
- ③ 빨지산 투쟁과 민족을 위해 한 일생을 바치신 빨지산 어머니를 모셔와 이야기를 듣는다.
- ④ 전여대협의 올해 투쟁방향을 정치연설을 통해서 알려내고 결의한다.

정신대 문제 해결투쟁과 자주교류투쟁

- ⑤ 의장님 응립 **↳ 정신대** **↳ 대경**
 - 지역의장들의 결의발언
 - 의장님 응립 공연과 응립

□ 출범식을 준비하면서

각 학교 단위의 활동에 대하여

전여대협 출범식을 전면적으로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 제안1 : 전여대협 출범식 준비위를 구성한다.

☼ 준비위 체계

●* 총화자

모든 집행을 총화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 정책생산 및 교양자:

전여대협 중앙에서 전달되는 전여대협 출범식준비를 위한 지침과 함께 간부활동가들을 교양하고 학교 단위에서 창조적으로 전여대협 출범식 투쟁을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측면을 고민하는 역할을 한다.

●* 정신대 문제 해결 투쟁단

서명운동과 국회의원 질의서 운동등 제반의 정신대문제 해결 투쟁을 창조적으로 전개한다.

●* 전여대협 해설단

전여대협이라는 조직을 학우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알려내고 학우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조직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 선전단

해설단과 투쟁단이 펼쳐내는 학우들 만나기 투쟁의 내용을 선전물로 만들어 광범위한 학우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예. 화장실 소자보투쟁, 대자보 투쟁등등)

- 제안2 : 전여대협 출범식 투쟁 집중기간

출범식 전에 기간을 설정하여 전여대협 조직과 전여대협의 올해 중심투쟁 내용에

새내기 정신을
전여대협에
전달시켜라

대한 해설함으로서 학우들과 광범위하게 전여대협을 공유하고 출범식에 의조직화를 한다. 위에서 제안한 전여대협 출범식 준비위를 집중기간 동안 구성하여 그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학우들을 만나간다.

올해 전여대협의 중심 투쟁의 방향을 해설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의조직화 한다.

->

정신대 문제 해결투쟁

정신대 문제 해결투쟁계획에 의하여 서명운동과 국회의원에 대한 질의서 보내기 투쟁을 전개한다.

자주교류 투쟁

✱ 출범식 이후 각 기층 단위에서 자주교류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모아낸다.

✱ 북한의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민족애를 발현할 수 있도록 북한의 여성을 위한 생필품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 결의를 모아내기 위하여 각 학교 총학생회장의 자교투쟁결의의 연서를 투쟁을 전개하고 이후 학우들과 공유하면서 학우들의 손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자교투쟁을 준비한다.

→ 17.8월 통일투쟁

50만 여학우의 구심인 의장님을 알려내고 전여대협으로 단결을 도모한다.

-> 모든 방도를 이용하여 전여대협 조직에 대한 알림과 더불어 50만 여학우의 구심인 전여대협 의장님을 학우들과 친근하도록 한다.

학우들을 출범식으로의 조직화 부분에 있어

타단위 간부들을 의조직화와 중앙의 방침을 전여대협 출범식으로 결합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

한총련 출범식속에서 진행되는 전여대협 출범식은 여학단위간부들뿐만이 아니라 각 단위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도 함께 조직화 되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교 중앙의 방침이 없이는 한총련 출범식에 온 학우들의 전여대협 출범식에 모두다 참여하지는 못한다. 그러하기에 100만의 힘을 모으는 전여대협 출범식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나 지역총련 중앙의 방침을 전여대협 출범식의 결합으로 결정해야 한다.

전여대협 출범식 투쟁을 전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여대협이라는 조직에 대해 인식도가 높아 지기는 하지만 중앙에 적극적인 전여대협 출범식으로의 결합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왜 전여대협 출범식을 100만 청년학도가 참여하여야 하는가를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전여대협 출범식 준비투쟁속에서 그리고 정신대 문제 해결 투쟁속에서 함께 이루어 졌을 때 전여대협 출범식은 100만이 함께하고 결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작년 1기 출범식의 경우 남여대협은 남총련에 제기하여 전여대협 출범식으로 남총련학우들을 집중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또 학교별로 중앙운영위를 통하여 출범식을 논의하면서 전여대협 출범식으로의 집중을 결정하여 한총련 출범식에 온 그 학교의 모든 학우가 전여대협 출범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은 고민없이 전여대협 출범식에 동원되어 온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전에 전여대협 출범식 투쟁을 학교에서 전개하면서 광범위하게 학우들을 의조직화 하는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며 전여대협 출범식의 의의와 목표를 실현하

는 방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침을 중앙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학교 여학단위 일꾼들의 전여대협 출범식투쟁을 전개하면서 학우들을 주인주체로 세우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여대협 출범식 준비투쟁은 올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정신대 문제완전해결투쟁과 직결된 것이며 각 학교의 여학생운동의 활성화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하기에 전여대협 출범식 준비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낼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전여대협 중앙의 활동계획(세부계획은 아직)

5월 둘째주 : 출범식에 관한 정책을 정리하고 내용을 생산한다. 제반 물량을 제작한다.

5월 셋째주 : 출범식의 내용으로 학교단위 하방을 진행하여 총화지도한다.

5월 넷째주 : 단위하방의 총화와 출범식의 실무준비를 진행한다.

전북대 활동계획(세부계획은 아직)

전북여대협의 출범식에 대한 집단적 결의를 다진다.

출범식을 학내 학우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출범식 준비에 대한 간부들의 결의를 높여내고 전반적인 실무준비를 진행한다.

□ 전여대협 거리

○각 지역에서 투쟁하고 있는 내용을 창조적으로 선전한다.(남의 고애순씨 투쟁, 대의 자교 투쟁, 서의 한미행정협정 개정투쟁 등등)

○올해 전여대협의 투쟁내용을 선전한다. *정신대투쟁 (경기농부)*

○전여대협 조직에 대한 선전을 한다. *- 중앙대협*

○전여대협 중앙상임위원들을 소개한다.

○출범식 기간동안 거점 마련투쟁을 전개한다. - 전여대협거리에서 정신대문제국회청원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궤장: 5~6마

□ 지역에서 준비하여야 할 물량

각 학교 총여학생회 깃발, 지역여대협 깃발

기념품: 옷

투쟁장: 지역 농민 투쟁, 지역여대협, 문맹투쟁, 준비와 (리켓)

신명거리투쟁하자!

출범식 본판 세부계획

출범식 본판 세부계획

~까지

사람	내용	노래	반주	무대	준비물	소요시간
식전행사	학우들이 모인다.		노래반주를 한다.		노래선정	5
1. 사회자등장	반갑다 잘왔다는 발언과 자기 소개. 지역참여 상황 점검과 자리정리		사회자 등장시 경쾌한 음악		음악 선정	1
2. 전북여대협의장	환영사 소개		경쾌한 음악		음악 선정	3
3. 사회자	전여대협 진군가 배우는 시간으로 천리마 소개					1
4. 천리마	진군가 가르쳐주기		진군가 반주			15
5. 사회자	전국내사항년의 환영공연소개					1
6. 전북대 자봉단 공연팀	공연		공연에 따른 노래		노래선정과 입수	5
5. 사회자	공연을 잘했다고 박수 다음전북여성농민회노래단 소개					1
6. 전북여성농민 노래단	공연		공연에 따른 반주		노래선정 파악	7
8. 사회자	공연에 감사뜻 표현 자리정리는 다시하고 구호외치기					1
	노래는 부르면서 식전행사는 마치고 본행사로 들어가자며 퇴장		노래에 따른 반주		구호선정 노래선정	3

사람	내용	노래	박주	무대	준비물	소요 시간
본행사	노래끝나기전에 사회장등장					
1.사회자등장	만나게되어 반 갑다며 자기소 개					2
2.개막선언	민족사적~전,여, 대,협을 학우들 과 의치고 '시 작하겠습니다.'			박을 터뜨 린다.	박과 박터 뜨리는 사 람	2
3.애국의례	애국의례한다. 노래한곡부르 고		빵파레올린다. 애국의 길 반주 임을위한 행진 곡			0.5 2
4.사회자	연대사 소개		경쾌한 음악			1
5.전북여성운동 연합의장(엄영 애선생님)	연대의 발언					3
6.사회자	한총련의장님께 서 오셨습니다.		한총련진군가			1 3
7.한총련의장님 의 축사(정명기 의장님)	의장님의 축사					3
8.사회자	군와공연의 기 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퇴장					2
9.빨지산 여성 공연팀 등장	공연		공연에 따른 반 주		음악입수	7
10.자주적 여성 상공연팀 등장	공연		공연에 따른 반 주		음악입수	7
11.빨진산 할머 님 음성듣기					썰렁한 무 대를 어떻 게할까?	3
12.사회자	할머님 건강이 야기와 다음 정 치연설 소개					1
13.정신대투쟁 (경기남부여대 협의회장)	연설		등장시 힘찬 음 악			7
14.자주교류투 쟁(대경여대협 의회장)	연설		등장시 힘찬 음 악			7
15.사회자	간단한 내용정 리와 투쟁조직 전여대협으로 정리 구호				구호선정 과 올림판 으로 자연 스러운 연 결을 어떻 게	3

47

51

66
23
7
35
101

옹립판, 옹립판 우 ○ 옹립판

1. 지역여대협 의장들의 결의 소개와 결의발언(5분)
(각기 개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흐름을 가진 구호의침으로 하고자 한다.)
▶ 흐름을 가진 구호의침만들기
발언이 끝난후 무대에서 내려와 계단을 올라가서 의장님 뒤를 따른다.
머리띠
2. 옹립공연(4분)
문예단의 울동(▶곡목 정하기)
3. 옹립
전여대협 진군가(5분)
계단에서 3가지 여성억압의 모순의 지점이 쓰여있는 프랑을 찢으면서 내려온다.
프랑에 쓸 내용정하기(3개)

전여대협 깃발(만들어야 한다.)

전여대
전여대협 깃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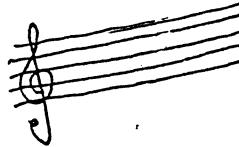
여성억압	의상님	남녀대협
대경여대협	중상들	전북여대협
서여대협		충청여대협
경기남부여대협		

4. 의장님, 옹립의 구체적인 표현(각 지역에서 준비한 꽃다발 선물등)(1분)
5. 의장님의 발언(3분)
6. 출범선언문 낭독(출범선언문 작성)(5분)
7. 의장님의 정리발언과 힘찬 노래로 끝(1분)

동일노래가대장



- ♣ 무대
결개그림1장(10m*20m)-홍익대학교
제목프랑 1장(2기 전여대협 출범식)
내림프랑 2장(
아래 무대 공간 가릴천
- ♣ 시스템
시스템 관리자
마이크(5개)
신디(신디주자:)
앰프
- ♣ 개막선언시 터드릴 박
박2개 프랑2장(내용:) 꽃가루



◆선전거리

1. 전여대협 조직선전(남여대협)
2. 교애순씨 투쟁(남여대협)
3. 기지촌 활동(서여대협)
4. 자주교류투쟁(대경여대협)
5. 여성열사들의 사진(충북여대협)
6. 퇴폐향락추방운동(부경여대협)
7. 정신대문제(경기남부여대협)
8. 의장님들의 캐릭터
9. 4.3항쟁(제주,)

◆ 판매거리

● 준비할 것

천막

선전판

정신대사진과 그림

책상4개

모금판, 불펜, 서명용지,

제목선전

자봉단 4인

● 판매물품

정신대 할머니들이 그린 엽서
누래망 빵
정신대엽서 팔림터 400원

전여대협 출범식 기획초안

수신 : 한총련 출범식 기획단

발신 : 3기 전여대협

-전부다 논의안된 부분들입니다. 최대한 이대로 가져가겠지만 일단 가안임을 감안하시길..

전여대협 출범식의 의의, 목표

1. 전여대협이 받아안아야 하는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50만 여학우들의 투쟁의지를 확인하고 이후 투쟁을 결의하는 장입니다.

-전면항쟁의 주역인 50만 여학우들의 김영삼 타도의지를 연세대 항쟁 성추행 진상규명투쟁을 통해 하나로 모아내고 더욱 힘있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장.

2. 전여대협 총회에서 보여준 여학간부들의 열의, 열정을 모아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분쇄하고 전여대협, 한총련을 강화하는 길로 모아내는 장입니다.

-전여대협 강화는 곧 한총련 강화입니다. 한총련에 대한 정권의 탄압앞에 전여대협 50만 여학우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우대중의 분노를 투쟁으로 분출시켜 투쟁속에서 강화되는 전여대협, 한총련을 만들어갈 것을 결의하는 장입니다.

3. 의장님을 전여대협 50만 여학우의 사상적, 실천적 중심으로 힘있게 옹립하는 자리입니다.

4. 100만이 함께 하는 한총련 출범식 안에서 여학우들의 김타도 의지, 조국통일의지를 과시하는 장이다.

여대항쟁 성추행진상규명투쟁, 하나바 축전 참가결의(아직 논의안됨)

전여대협출범식에선요..

1. 출범식

여는마당- 사회자-?

50만 여학우들의 전여대협, 한총련 출범식 참가와 사수의 의지를 높이는 자리

전여대협 진군가 배우기, 울동 배우기

지역별 결의(지역별 대표자, 새내기 1인 조직)

환영인사와 결의(출범식 준비위원장 인사)-준비위에 대한 고민이 정리되지 않아서 아직 불확실

서여대협, 혹은 동지여대협 혹은 한양대 여학일꾼중심으로 문예판 -즐겁게

본행사-사회자; 중상가운데 1인

개회사

애국의례

축사 - 한총련의장님 혹은 조통위원장님..-연대항쟁 성추행 진상규명투쟁의 내용을 조금 가미해서 결의세워주시는 발언.

연대사 - 여연, 여농, 주미본 등에서 섭외

문예공연 - 부경여대협

: 연세대 항쟁 성추행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극을 준비(부경여대협 출범식에서 공연...)

전여대협 기간 투쟁 보고

- 연대항쟁 성추행관련 보고, 정치연설-중상

- 하나바 축전 참가에 대해 -왜 참가하는가. 정당성들을 중심으로 발언- 중상

의장님 옹립과 3기 전여대협 출범 선포식

전여대협의 역사를 조명하고 그속에서 2기 의장님의 축하 인사말

의장님 옹립공연 : 중앙문예단의 옹립공연(이후 투쟁과제를 형상화하는 내용과 결의 등등)

의장님 옹립 및 결의의 말 및 출범 선언문 낭독

--출범식 판에선 크게 필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최대한 여대협을 조직화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전부다 삭제해 버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장소(?), 앰프, 무대설치, 출범식 반주단이구요. 혹여 출범식 축하공연을 해 줄 수 있는 단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2. 선전거리(선전판, 장소 정리가 필요하겠지요..)

1) 연대항쟁성추행진상규명투쟁에 대하여

-연대항쟁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부터 성추행진상규명투쟁결의까지

2) 전여대협이 하나바로 가려는 이유...제2의 '민족통일여학생단'을 모집합니다.

3) 조중필 학우의 죽음에 부처 주한미군 범죄사

3. 물품판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연대항쟁 성추행 진상규명투쟁기금마련을 위한 티셔츠 판매, 정신대 할머니 엽서, 그외.....

이상입니다.

5기 전여대협 출범식 1차 제안서

● 문서의 순서

1. 들어가며
2. 출범식 기치
3. 출범식의 의의
4. 99년 전여대협 출범식의 목표
5. 출범식 장소와 일정
6. 의식화 방도
7. 조직화 방도
8. 출범식의 구체적인 판

★민중연대 한마당으로 만들자

-전여대협 연대단위 초청문

-전여대협과 연대단위의 공동선언문

★전여대협 총회 성사 한총련 출범식 시수,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연서 운동

→신문광고 투쟁

1. 들어가며

5월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총련 대의원 대회 투쟁 시수를 위해 홍익대와 명동성당을 거점으로 하던 투쟁이 이제 3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한총련 대의원 대회 성사 투쟁을 통해 청년 학생의 애국의 열정이 4천만 민중들에게 확인검증받는 과정이 됨과 동시에 4천만 애국 민중이 한총련 백만 학도를 중심으로 단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4천만 각 계급계층의 민중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오로지 거리에서 투쟁하는 것만이 살길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투쟁하고자 했고 청년학생이 투쟁의 공간만 만들어 준다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총련 대의원 대회를 기점으로 한총련을 비롯한 민족민주 운동세력을 탄압하려던 정권의 구도는 파탄이 났으며 4천만 애국민중은 한총련과 함께 매국세력에 대항해 명확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제와 전민족의 대결구도와 김대중과 애국민중과의 대결구도는 앞으로 있을 한총련 출범식과 전여대협 출범식을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날 것이며 이것은 총체적 반미투쟁을 핵심축으로 하여 반전투쟁의 적극화와 반김 투쟁의 전면화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총련 대의원 대회 성사 투쟁과 전여대협 총회 성사의 과정에서 많은 성과지점들을 낳았습니다. 전여대협으로 통큰 단결을 이루어내며 조직사상적 단결을 확인하였고 무엇보다 대표자를 중심으로 단결하겠다는 기풍을 새로이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단위의 대표자들이 대학으로 돌아가서는 그런 결의를 중심으로 기층일꾼들을 만나

고 투쟁해야 하나 아직까지 명확한 자기 구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전여대협 운동을 평가 하면서 나섰던 '대중운동의 방도를 원칙적으로 알자'만 제대로 체득한다면 단지 핵심 몇몇만의 투쟁이 아닌 광범위한 대중이 결집하고 옹호 지지하는 투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남녀대협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각 단위 총여학생회별로 투쟁본부체계를 건설하고 선봉대를 조직하여 새로운 대중운동 방도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여대협 출범식과 한총련 출범식을 50만이 함께하고 100만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투쟁의 공간으로 만들어 여학생운동 대중화의 새로운 국면을 창출해 냅시다.

2. 출범식 기치

함께 나서자, 2천만의 눈빛이 가리키는 대적동의 장으로 !!

반미반전의 적극화, 반김의 전면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기필코 완전해결과

전쟁책동주범, 한민족 여성유린 주범 미국축출을 위해

한반도 여성민중이 민족대단결 실현의 선봉에서

50만이 함께하는 역사의 뜻을 올렸다.

민중의 힘은 무한각,

2천만 민중과 함께 승리하자.

3. 출범식의 의의

①정세적 측면

구조조정 최대 피해자는 여성 즉 '정리하고 일순위는 여성'이라는 유행어 아닌 유행어를 만들어낸 이후 정권의 여성 차별화 정책으로 여성고용을 악화하는 등 여성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김대중정권에 대해 여성민중의 분노를 보여주고 투쟁으로 강렬하게 요구하는 장이다.

정권초기 정권교체의 기쁨과 더불어 '국민의 정부, 경제 대통령, 인권 대통령'이라는 허울을 민중들은 사실인양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단지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와 함께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술책으로 '여성을 위한 정권'이라는 허울도 만들어 스스로를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중들은 금방 그 빈 깡통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고용 할당제 및 정부 기구 설치등의 장밋빛 공약을 선보였으나 취임1년이 지난 지금 그나마 있었던 정부의 여성을 위한 조직마저 해체하고 정부 기구에서는 직접적인 성차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련 기구설치면서도 구조조정 과정에 일하는 여성들의 평등권과 노동권, 모성보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노동관련 부처의 기능이 보다 확대된다하더라도 여성노동자들의 생존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동부의 여성담당기구 축소를 논의하고 있고 이것은 노동부 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가 설치한 6개 기구의 여성정책 담당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짜고 있습니다.

이미 2천만 여성민중은 정권의 반여성적인 행각을 '공창제도 입법화 논의'등에서 확인한 바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도는 투쟁밖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를 입증이라도 하고자 더욱 반여성 정책을 일관하고 있는 정권에게 2천만 여성민중의 분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여대협 출범식을 통해 여성민중의 투쟁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50만이 함께 투쟁함을 결의하는 장입니다.

②운동의 대중화에 대한 측면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한총련을 사수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이제는 자기 조직의 창조적인 대중운동 방도 창출로 운동의 대중화 실현과 함께 이루어내는 자리이다.

기본적으로 출범식의 공간이 단지 이벤트가 아니라 투쟁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나아가 이제는 누가 어떻게 투쟁하는가가 중요하게 고민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노선에서 우리는 여학단위의 대중운동 방도 창출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고 그에 따라 대중운동의 원칙에 대하여 중요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각 계급 계층의 처지에 맞는 이해와 요구는 전체 변혁의 과제와 일맥상통하지 않으면 완전한 변혁을 이룰수 없으며 또한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투쟁으로 조직하지 않아도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하였습니다.

여학단위 대중투쟁과제를 잘 인식하고 그것을 전술적 목표로 설정하고 중국에는 변혁의 전략적 과제로 귀결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지 없이 대동아 공영권을 획책하는 일본과 한반도 핵참화의 주범 미국을 반대하면서 미일 신가이드 라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사대굴욕적인 외교로 한반도 여성민중을 전쟁의 성노리개로 팔아 넘기려하면서 여성민중의 생존권까지 팔아 넘기는 반김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는 중국에는 근원적인 미국을 축출하는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학단위의 의식화의 지점이며 이를 우리의 구체적 대중인 여학우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조직화하여 더 많은 여학우 대중이 투쟁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대중조직화의 창발성이 발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여대협 출범식을 성사하기 위한 과정에 각 단위별로 '전여대협 출범식 성사를 위한 선봉대' 혹은 '전여대협 출범식 성사를 위한 유격문선대' 혹은 '전여대협 출범식 성사를 위한 새내기 여학우 선전단' 등을 조직화하면서 자기 단위 대중을 장악하고 흐름을 형성한다면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투쟁하는 출범식을 성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전여대협 출범식은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장입니다.

③전체민중의 단일한 결집을 이루는 과정

'한총련 대의원 대회 사수' 라는 단일한 구호로 전체 애국민중민주 세력이 결집되는 쾌거를 보았다. 전여대협 총회 성사의 의의를 여성민중들과 함께 하고 전여대협 출범식 또한 2천만이 지지하고 옹호 하는 자리로 되게 한다.

아직 한총련 대의원 대회는 치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4월 서울의 아스팔트를 달구었던 민중의 요구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총련 이적규정이 철회되는 것은 애국세력에 대해 정권이 무릎을 꿇는 것이고 민중의 생존권적 요구와 반미 반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총련 대의원 대회 성사'라는 구호가 4천만이 결집하는 투쟁의 구호였음에 다름 아닙니다.

그간 여성민중연대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서 한총련과 함께 하는 여학생운동의 정당성을 여성민중속에서 검증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각 지역에서부터 2천만 여성민중들과 함께 반미, 반전, 반김 만이 우리가 살길임을 동일하게 만들어 냈시다.

생존권적 요구를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요구로 모아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투쟁력이 발현되고 있고 투쟁의 공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난 4월까지의 각 사업장에서 여성의 투쟁과 희망선택등에서 대변되는 여성조직들에서 잃었습니다.

전여대협 출범식을 통해 2천만의 준비된 분노를 50만이 함께 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4. 99년 전여대협 출범식의 목표

■정치적 목표

①반미 반전 반김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낸다,

②남북해의 3자 연대로 일본군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기필코 해결할 것을 결의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루어내지.

■조직적 목표

①5월 새내기 조직화를 비롯해 기층 여학생회 건설과 강화를 구체적 목표 속에서 실현시켜낸다.

②③④⑤⑥

■의식화 지점

①반미의 지점

-주한미군의 강간 살인만행 반대, 전쟁책동 반대

②반김의 지점

-여성차별화 정책등 여성민중생존권 위협 반대, 공창제도 입법화 운운 반대

③반일의 지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않고 군국주의 부활음모 반대

④⑤⑥

5. 출범식 장소와 일정

장소: 서울지역 모처 (한총련 출범식 장소)

시간: 5월 28일 부문계열 출범식에서

6. 의식화 방도

7. 조직화 방도

8. 출범식의 구체적인 판

★민중연대 한마당으로 만들자

-전여대협 연대단위 초청문

-전여대협과 연대단위의 공동선언문

★전여대협 총회 성사, 한총련 출범식 사수,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 운동

→신문광고 투쟁

→ 별첨자료로 계속

같은날 지역여대협별로 신문광고

28일 6만원 자리로

. 전여대협 부하 _____

. 전여대협 → 3만원 농화.

26~27일 오전까지.

6.10 전여대협-조선학생위원회 산하 여학생대표단-해외 결의대회를 제안합니다.

<6.10 전여대협-조선학생위원회산하 여학생대표단-해외 결의대회 기획안>

● 명칭

- 미일제의 신가이드라인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강제 중군위안부 문제 남북, 해외 공동해결 민족 대단결 실현을 위한 6.10 전여대협-조선학생위원회 산하 여학생대표단-해외 결의대회

● 의의와 목표

1)의의

- 더욱 노골화 될 미국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미일제가 합의한 신가이드라인(미-일의 방위 협력체계)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정치적 과제들을 실현시켜 낼 데 대한 남과 북, 해외의 여대생의 선봉으로 2백만 청년학생의 단결로 결의를 모아가는 장이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을 통한 3자연대 투쟁으로 조국통일을 주동성있게 안아올 민족자주역량 구축의 토대를 남과 북, 해외의 여대생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더욱 강화하는 장이다.
- 1시기 자주교류 투쟁을 총화하고 모의법정 공동성사실현을 결의하는 장이다.
- 6.10 청년학생 실무회담과 이후 자주교류 투쟁을 통한 남과 북 해외의 백만 여대생들이 민족대 단결 의식 고취로 조국통일의 주역이 될 것을 힘있게 결의하는 장이다.
- 남과 북, 해외 탁단 여대생의 선봉투쟁으로 이백만 청년의 단결투쟁으로 주한미군 철수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다시금 결의하는 장이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지 없는 반여성 반민중 반통일정권 김대중 정권퇴진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는 장이다.
- 지역단위의 자주교류투쟁의 실현과 활성화를 결의하는 장이다.

2)목표

- 자주교류의 학생단위의 모범투쟁을 대중적이고 다양한 여성연대 실현을 통해 창구단일화 논리를 깨부수고 민중들속에서 브워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이미 자주교류의 성과가 있는 단위는 자매결연 실현을 준비하도록 한다.
- 지속적인 자주교류 진행을 위해 주체마련을 새내기 방북단이나 자주교류단을 결성하는 것으로 실현하도록 한다.

● 때와 장소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 6월 10일
- 6.10 회담 성사집회 1부행사관

● 집회 기획안

1부 : 결의대회

- 정치연설

1. 미-일간의 신가이드라인 반대하고 미제에 의한 전쟁책동 분쇄하자.(남)
2. 남과 북 해외의 백만 여대생이 조국반도 전쟁 주범 주한미군 철거, 통일조국 건설의 주역이 되자!(북)
3. 6.10 청년학생회담 성사시키고 남북해외 자주교류 투쟁 활성화로 전민족대단결 고취시키자!(해외)

- 공동결의!

일본군 강제 중군위안부 해결의지없는 반여성, 반민족정권 김대중 정권 퇴진시키고 남과 북, 해외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동해결 투쟁으로 전쟁책동 분쇄하고 90년대 연방통일조국 이룩하자!
(남)

8.15 통일대축전 부문계열마당 준비를 제안합니다.

〈8.15일 통일대축전 부문계열 마당 기획안〉

● 의의

- 상반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동해결투쟁을 총화하는 장이다.
- 하반기 모의법정 공동성사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다.

● 때와 장소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 8월 13~15일 통일대축전에서

● 상설마당 내용

9.2엔이권력에서는 권고만
· ILO 강제까지 가능

- 선전거리 마련: 남과 북 해외의 기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 내용 할머니 사진전

- 시모노세키 재판 승소에 대한 일본측 상고에 대해 일본측의 올바른 재판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 발표

- 6월 10일에서부터 8월 15일까지 시모토세키 올바른 재판을 위한 공동서명을 진행하여 국제적 활동을 지향하고 통일대축전 공간에서 총화하자. (이남은 나눔의 집에서 제작한 엽서도 진행) 강제력 필수

- 남과 북, 해외의 정신대 할머니에게 보내는 엽서쓰기

있는 국제기구에게
제노.

- 통일기원 버튼 판매

- 집체극(정신대 할머니의 한(恨)을 담은 집체극)

-2000년 국제전범법정 7개국 권위안소 방문 사업

● 핵심사업

- 하반기 모의재판을 위한 이북 정신대 할머니와 여대생 초청사업을 위한 초청장 발송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세미나

↳ 남북해외 국제법정 박제

연대사업 영역

1. 여름농활 준비를 위한 여농학 연추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단위마다 농활 주체마련을 합시다.
2. 게이 맥두갈 초청 국제 세미나가 6월 4일에서 5일까지 있습니다. 더불어 성신여대 조시현 교수님 초청 게이 맥두갈 보고서 토론회가 학생단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 늦은 6시 30분입니다. 단위별로 1인이상 반드시 참석을 조직화 합시다.
3. 지역별 1학교 1단위 연대실현과 관련한 산안을 총화해 주십시오.

—한소라원: '대매출 연구' 누가새 모집

↳ 비결 정도

국회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사업과
정대법